

KIA, LG 스윙 기세로 3위 굳히기…준PO 직행 보인다

남은 6경기서 5승이면 자력 확장…LG와 1경기 차
NC 원정 최대 고바…12일 최종전 이전 승부 관전



LG트윈스와의 2연전의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은 KIA타이거즈가준플레이오프 직행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추격자에서 수성자로 위치가 바뀐 KIA는 6일 경기 전 기준 리그 종료까지 6경기를 남겨뒀다. 경쟁팀 결과를 따질 필요 없이 자력으로 3위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승수는 '5승'이다.

KIA는 지난 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SOL뱅크 KBO리그 LG와의 원정경기에서 김도영의 9회 극적인 역전 3점포를 앞세워 6-4로 승리했다.

앞선 두 경기까지 잡았던 KIA는 LG와의 잠실 3연전을 싸늘이하며 75승 2무 61패 승률 0.551로 3위를 지켰다. 4위 LG(75승 1무 63패 승률 0.543)와의 격차는 1경기로 벌렸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KIA는 KT위즈와의 홈 3연전을 모두 내주며 3위 경쟁에서 밀리는 듯했다. 하지만 잠실에서 세 경기 연속 맞스를 발휘하며 판도를 뒤집었다.

3일에는 8회말 1사 만루 위기를 넘긴 뒤 9회초 김선빈의 스쿼드로 결승점을 뚫었고, 4일에는 9회초 LG 마무리 손주영을 공략해 6-5 역전승을 거뒀다. 5일에는 3-4로 끌려가던 9회초 2사에서 김도영이 고구석을 상대로 역전 스리런포를 터뜨려 스윙을 완성했다.

이제 계산은 비교적 단순하다.

KIA가 남은 6경기에서 5승 1패를 거두면 80승 2무 62패 승률 0.563으로 정규시즌을 마친다. LG가 남은 5경기를 모두 잡더라도 80승 1무 63패 승률 0.559에 그쳐 KIA를 넘어설 수 없다.

4승 2패도 상당히 유리하다. KIA가 79

승 2무 63패를 기록하면 LG는 남은 5경기를 모두 이겨야 순위를 뒤집을 수 있다. LG가 한 경기라도 패하면 KIA가 앞선다.

KIA가 3승 3패에 그칠 경우에는 LG의 추격 가능성이 커진다. KIA의 최종 성적은 78승 2무 64패가 되고 LG가 4승 이상을 거두면 역전이 가능하다.

5위 두산의 추격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KIA가 훨씬 유리하다. 두산은 남은 3경기를 모두 이겨도 75승 5무 64패에 그친다. KIA가 2승만 추가하면 두산의 전승 여부와 관계없이 앞선 승률로 시즌을 마칠 수 있다.

3위와 4위의 차이는 크다. 3위는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해 체력을 비축할 수 있지만 4위와 5위는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가을야구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5위는 4위의 홈에서 두 경기를 모두 잡아야 준플레이오프에 오를 수 있다.

KIA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오는 12일 LG와의 정규시즌 최종전 전에 3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KIA는 6일 삼성전 이후 7일 사직 롯데전, 9일 창원 NC전을 차례로 치른다. 이후 광주로 돌아와 10일 SSG, 11일 롯데와 맞붙은 뒤 12일 LG와 최종전을 갖는다.

최대 고바는 NC 원정이다. KIA는 올 시즌 NC에 4승 11패로 절대 열세를 보였다. 여기에 선발 로테이션대로라면 NC 토종 에이스 구창모와 맞붙을 가능성도 있다. 11일 롯데전에서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건 최완 김진욱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KIA가 초반부터 최대한 승수를 쌓아야 하는 이유다. 경쟁팀들의 맞대결도 KIA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LG와 두산은 7일 잠실에서 격돌한다. 승패가 갈리면 둘 중 한 팀은 반드시 패배를 떠안는다. 특히



지난 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SOL뱅크 KBO리그 LG와의 원정경기에서 승리한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KIA타이거즈

직접적인 3위 경쟁 상대인 LG가 패한다면 KIA의 셈법은 한층 수월해진다.

최종전 전 조기 확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KIA가 LG전을 제외한 앞선 5경기에서 4승 1패를 거두고 LG가 같은 기간 3승 1패 이하에 그치면 마지막 맞대결 결과와 관계없이 3위가 결정된다. KIA가 3승 2패를 거둔다면 LG가 두 차례 이상 패해야 최종전 전에 승부를 끝낼 수 있다.

반대로 KIA가 주춤하고 LG가 버틴다면 3위의 주인은 정규시즌 마지막 날 광주에서 가려질 수 있다.

이범호 감독은 “경우의 수는 다양 생각하고 있진 않다. 오늘날 경기에 어떻게 이기냐만 바라보고 있다. LG전 스윙승으로 3위가 되다 보니 경우의 수가 많이 나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우선 오늘내일 LG와 두산도 각각 경기 치른다. 그 두

경기면 어느 정도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다음 상황을 보면서 선발 로테이션 등을 어떻게 준비할지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IA는 불과 사를 만에 LG를 쫓던 처지에서 3위를 지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1경기 차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간격이다.

최근 상승세를 탄 두산까지 산술적인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어 방심할 여유도 없다.

LG와의 3연전에서 보여준 막판 집중력을 남은 6경기에서도 이어가는 것이 관건이다. 잠실에서 극적인 스윙으로 잠은 준플레이오프 직행의 주도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KIA의 정규시즌 마지막 일 주일에 시선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 육성선수 7명 영입…미래 전력 자원 확보

투수 이준혁·최승혁·MLB 출신 최병용 등 합류

KIA타이거즈가 잠재력 있는 육성선수 7명을 영입하며 미래 전력 강화에 나섰다.

KIA는 투수 이준혁(22), 최승혁(20), 내야수 최병용(24), 이지원(21), 송승엽(23), 외야수 김태연(22), 지승기(22) 등 총 7명을 육성선수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일고와 한양대를 졸업한 우완 투수 이준혁은 뛰어난 신체 조건과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춘 선발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광주동성고를 거쳐 부산과기대를 졸업한 우완투수 최승혁은 좋은 볼 컨트롤과 각이 큰 변화구를 갖춘 것이 강점이다.

내야수 가운데 최병용은 미국프로 야구 무대를 경험한 이력이 눈길을 끈다. 신일고를 졸업한 최병용은 2023년 메이저리그(MLB) 드래프트 20라운드 전체 611순위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지명돼 입단했다. 우수한 신체 조건과 빠른 배트 스피드에서 나오는 장타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대전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이지원은 안정적인 타격 능력과 성실함을 갖추었으며, 충암고와 동원대를 거친 송승엽은 뛰어난 운동 능력과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투수 이준혁

내야수 최병용

외야에도 두 명의 자원을 보강했다. 부산고와 동원과기대를 졸업한 김태연은 뛰어난 콘택트 능력을 앞세워 올 시즌 대학리그에서 꾸준히 높은 타율을 기록했다.

서울자동차고와 한일장신대를 졸업한 지승기는 우수한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을 갖추었으며 공·수·주 전반에서 안정적인 경기 수행 능력을 보였다는 평가다.

KIA는 신인 드래프트에서 선택받지 못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테스트를 진행한 뒤 이번 영입을 결정했다. KIA 관계자는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지 못했지만 눈여겨보던 선수들을 테스트를 거쳐 영입했다”며 “선수별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뒀다. 구단의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과 지속적인 출전 기회 제공을 통해 팀 전력에 보탬이 되는 선수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육상연맹이 최근 광주월드컵경기장 육상장에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광주 육상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육상연맹

AG서 빛난 광주 육상, 전국체전 메달 사냥 기대

금 3·은 3·동 3 목표…54명 선수단 제주 무대 출전

AG 계주 동메달·한국新 이재성에 포상금 전달도

광주 육상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결의를 다지며 제주에서 펼쳐질 메달 레이스의 출발선에 섰다.

광주시육상연맹은 최근 광주월드컵경기장 육상장에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광주 육상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김민주 광주시육상연맹 회장을 비롯해 연맹 관계자와 지도자, 선수 등이 참석해 전국체전 선전과 안전한 대회 참가를 기원했다.

광주 육상은 이번 전국체전에 54명의

선수를 파견해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목표로 메달 사냥에 나선다.

선수단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제주 무대에서 유감없이 펼쳐 광주 육상의 저력을 전국에 알리겠다는 각오다. 광주시육상연맹도 대회까지 선수들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등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민주 회장은 선수들에게 성적에 대한 부담보다는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며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제107회 전국체전은 2014년 제95회 대회 이후 12년 만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다.

전국에서 2만9044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50개 종목에서 사·도의 명예를 걸고 경쟁하며, 경기는 제주도 내·외 74개 경기장에서 7일간 펼쳐진다.

이날 결단식에서는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광주 육상의 위상을 높인 이재성(광주특별시청)에 대한 특별한 격려도 이어졌다.

김 회장은 아시안게임 육상 남자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한국신기록까지 작성한 이재성에게 포상금을 전달했

다. 2024년부터 광주특별시청 소속으로 뛰고 있는 이재성은 국내외 무대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광주 육상의 간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민주 광주시육상연맹 회장은 “전국체전을 위해 오랜 시간 묵묵히 훈련해 온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부상 없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 광주 육상의 자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과 한국신기록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둔 이재성의 활약은 광주 육상인 모두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줬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더 큰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2026 장애인아시안게임 선수단 결단식

18~24일 일본 아이치·나고야서…금메달 21개 이상 목표

2026 아이치·나고야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결단식이 열렸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6일 오후 2시 경기 이천선수촌 삼성관에서 아이치·나고야 장애인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18개 전 종목에 357명(선수 214명·경기 임원 104명·본부 임원 39명)의 선수단이 파견된다. 선수단은 금메달 21개 이상을 획득을 목표로 열전에 뛰어든다.

결단식에서는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정진한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박홍식 선수단장을 비롯해 선수와 지도자, 후

원사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대회를 앞두고 결의를 다졌다. 체육회는 국제무대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과 차세대 선수들이 함께 나서는 이번 대회를 2028 로스앤젤레스(LA) 패럴림픽을 향한 국제 경쟁력을 점검하고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을 방침이다.

분산 개최에 대비한 권역별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이치·나고야 장애인아시안게임은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시, 이즈미 일원에서 열린다.

선수단은 종목별 일정에 따라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영식을 연다. 대회를 마친 후 25일 귀국 예정이다. 연합뉴스